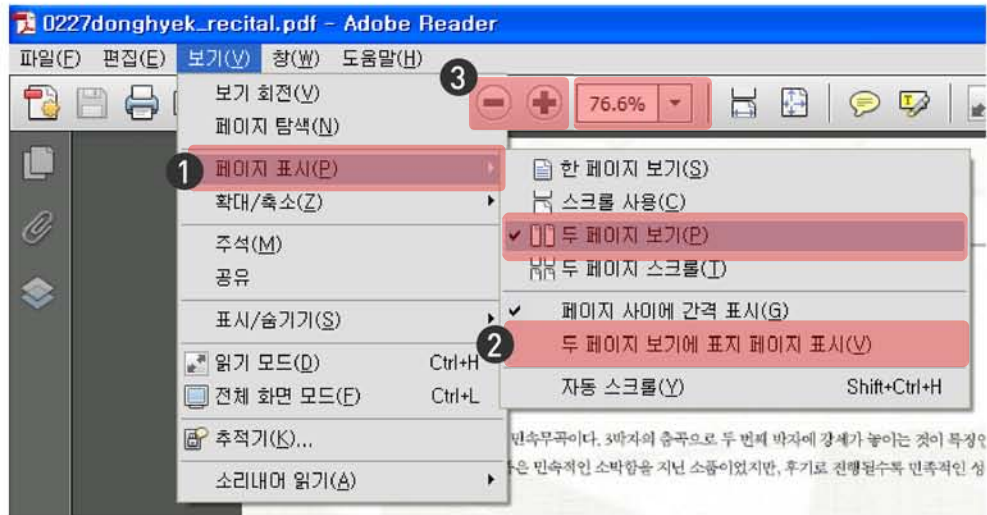


CREDIA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공연의 프로그램북을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아래 안내와 같이 설정해서 보시면 더욱 편하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Guide 1 프로그램북 2페이지씩 보기 (프로그램북이 한 페이지씩 보일 경우)



- ① PDF reader 메뉴바_보기_페이지표시_두 페이지 보기 선택
- ② 메뉴바_보기_페이지표시_두 페이지 보기에 표시 페이지 표시 선택 해제
- ③ 원본 사이즈로 보기
 확대 및 축소는 -, + 버튼 클릭

Guide 2 프로그램북이 2페이지씩 보일 경우 다른 설정 없이 보셔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PIETER
WISPELWEY
CREDIA
&
PAOLO
GIACOMET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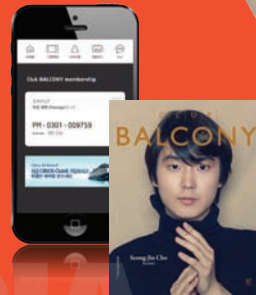
15만 공연애호가들의 선택 Club BALCONY가 제안하는 품격있는 문화예술의 경험과 서비스

클럽발코니와 함께 감동의 문화생활을 설계해보세요!



JOIN Club BALCONY

15만 공연애호가들의 선택 (예매고수의 노하우)
크레디아 기획공연 5~30% 상시 할인
나만의 비서! 티켓 오픈 무료 SMS 서비스
문화애호가들의 필수품, Club BALCONY 매거진 무료우송
모바일 회원카드 확인 후 크레디아 기획공연 프로그램북 증정
크레디아 기획공연 단독 선예매 및 예매, 취소, 티켓 배송 수수료 면제
만료 후 재가입 시 할인 혜택



JOIN CIELOS Club

CIELOS 회원만을 위한 프라이빗 음악회, 전시회, 럭셔리 문화행사 무료초대 (동반1인 포함)
CREDIA의 엄선된 공연 패키지 30~50% 할인제공 및 좌석우위
Club BALCONY 평생회원 자격

Upcoming Programs

클럽발코니 렉처 프로그램

클럽발코니 x 오드포트 친절한 디토씨의 음악여행

- ↳ 미샤 마이스키 & 무지크 콜레기움 빈터투어 | 10/17
- ↳ 안네 소피 무터 | 11/21
- ↳ 사라 장 | 12/19

CIELOS TOUR

빈 필하모닉과 함께 떠나는 유럽 크루즈 10박 12일 | 2020/9/19 ~ 9/29
* 9월 중 판매 오픈!

Pieter Wispelwey
& Paolo Giacometti

피터 비스펠베이
첼로 리사이틀

2019년 9월 24일 (화)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8PM Tuesday, September 24, 2019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첼로, 피터 비스펠베이 Pieter WISPELWEY, Cello
피아노, 파올로 자코메티 Paolo GIACOMETTI, Piano

주최 **CRE DIA MUSIC & ARTISTS**

후원 **KOREAN AIR 50**



놀라울 정도로 설득력 있는 첼로 버전의 슈베르트 판타지

- 그라모폰 지 -

“이번 공연은 슈베르트가 경험했던 19세기 초반의 비엔나를 떠오르게 할 것입니다.
더욱이 첼로로 연주되는 것을 거의 들어보지 못한 곡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험을 했습니다.

이 모험을 관객분들이 즐기기를 기대합니다”

- 피터 비스펠베이 -

슈베르트 1797-1828
Austria

F. Schubert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가장조 '두오', Op.162 D.574 23'

Sonata for violin and piano in A Major 'Duo', Op.162 D.574

- I. Allegro moderato 적당히 빠르게
- I. Scherzo & Trio, Presto 스케르초 & 트리오, 매우 빠르게
- III. Andantino 안단테보다 조금 빠르게
- IV. Allegro vivace 매우 빠르고 생기있게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 다장조, Op.159 D.934 25'

Fantasy for violin and piano in C Major, Op.159 D.934

- I. Andante molto 매우 느리게
- II. Allegretto 조금 빠르게
- III. Andantino 안단테보다 조금 빠르게
- IV. Andante molto 매우 느리게

I N T E R M I S S I O N

아르페지오네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가단조, D.821 25'

Sonata for arpeggione and piano in a minor, D.821

- I. Allegro moderato 적당히 빠르게
- II. Adagio 매우 느리게
- III. Allegretto 조금 빠르게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시든 꽃' 주제에 의한 서주와 변주, Op.160 D.802 20'

Introduction and Variations on 'Trockne Blumen' for flute and piano, Op.160 D.802

- I. Introduction- Andante 서주 - 느리게
- II. Theme- Andantino 주제 - 안단테보다 조금 빠르게
- III. Variation 1 변주곡 1
- IV. Variation 2 변주곡 2
- V. Variation 3 변주곡 3
- VI. Variation 4 변주곡 4
- VII. Variation 5 변주곡 5
- VIII. Variation 6 - Allegro moderato 변주곡 6 - 적당히 빠르게
- IX. Variation 7 - Allegro 변주곡 7 - 빠르게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ic devices.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가장조 ‘두오’
Op.162 D.574

Sonata for violin and piano
in A Major ‘Duo’
Op.162 D.574

슈베르트가 일곱 곡의 소나타를 완성한 1817년은 진정 ‘소나타의 해’였다. 그가 이렇게 소나타에 집중한 것은 베토벤을 잇는 기악 작곡가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천성적으로 탁월한 노래 작곡가였기에, 그의 기악 선율에는 유연한 흐름과 규칙적인 호흡 등 노래에 어울리는 특징들이 자연스럽게 녹아있다.

바로 그해 여름에 작곡된 <바이올린 소나타 가장조>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1년 전인 1816년 봄에 완성된 세 곡의 바이올린 소나타들은 모차르트의 영향이 많이 보이는 것과는 달리, 20세가 되어 작곡한 이 네 번째 바이올린 소나타는 이들과 달리 모차르트의 정취로부터 멀어져 있다. 그래서 과거에서 벗어나 진정한 낭만음악가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곡은 ‘두오’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1851년에 디아벨리가 출판하면서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완벽한 이중주를 이룬다는 의미로 붙인 것이다.

1악장은 저음의 부점 리듬 선율과 이에 엇갈리는 화음으로 울동감을 살린 피아노 연주로 시작하며, 곧 그 위에 청명하고 애정 어린 바이올린 선율이 노래하듯 진행한다. 이 제1주제는 소박한 희망과 기쁨을 품고 있지만, 곧 긴장한 피아노 반주 위에 하강하는 선율로 어둠이 드리운다. 그러나 다시 상승하는 제2주제로 분위기를 크게 반전시킨다. 오스트리아의 희극 작가 에두아르트 폰 바우에른펠트는 이렇게 두 가지 감정이 격변하는 슈베르트의 음악에 대해 “빈의 유쾌한 기분이 깊은 슬픔으로 엮여 정화되었다”라고 표현했다.

2악장은 활기 넘치는 스케르초로서 상승하는 주제로 강렬하게 시작하며, 이와 대조되는 차분하고 느린 트리오(중간 부분)를 거쳐 첫 주제로 돌아온다. 3악장은 슈베르트의 서정성이 돋보이는 느린 악장으로, 과감한 조성 변화에서 한 차원 성숙한 슈베르트의 작곡 실력이 엿보인다. 4악장은 승리감 넘치는 피날레이다. 제1주제는 강렬한 도약과 아르페지오가 인상적이며, 제2주제는 <코틸롱, D.976>을 인용한 것이다. ‘코틸롱’(cotillon)은 네 쌍의 남녀가 사각형의 꼭짓점 위치에서 추는 프랑스 춤으로, 빈에서 무도회의 마지막 순서로 유행했다. 당시 빈 사람들은 이 코틸롱 주제를 들으며 곡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자연스럽게 알았을 것이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 다장조
Op.159 D.934

Fantasy for violin and piano
in C Major
Op.159 D.934

1828년이 되자 슈베르트는 대외적으로 작곡가로서의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그해 1월에는 무려 다섯

개의 연주회에서 슈베르트의 곡이 연주되었으며, 3월에는 빈에서 슈베르트의 공개 피아노 독주회가 열리기도 했다. (슈베르트의 공개 연주회는 매우 드물었다.) 그리고 2년 전 슈베르트의 편지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던 쇼트와 프로프스트 등 출판사들이 그의 작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1월에 슈베르트의 곡을 연주한 음악회 중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슬라비크와 피아니스트 칼 마리아 폰 보클레트의 음악회도 있었다. 이 음악회의 프로그램에는 지난해 12월에 작곡된 슈베르트의 따끈한 신곡 <환상곡 다장조>도 포함되어있었다. 슈베르트는 이 곡을 작곡하면서 슬라비크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감격스럽게도 곧바로 실현된 것이다. 하지만 평론가의 평가는 그리 좋지 못했다. 길이가 너무 길고 주제와 화음이 복잡했기 때문이었다. 한 평론가는 “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 관객은 홀에서 점점 빠져나갔고, 작곡가는 이 곡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실토하고 있다.”라고 평했으며, 다른 평론가는 “공정적으로 말해 잘못 작곡되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프로프스트가 이 곡을 출판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우울한 상황 속에서 슈베르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출판은 1850년에 이루어졌다.

<환상곡 다장조>는 ‘환상곡’이라는 제목처럼 슈베르트 말년의 자유로운 작곡 스타일을 보여준다. 1악장은 고요하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피아노 연주로 시작한다. 무언가(無言歌)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선율과 화사한 피아노 반주가 돋보인다. 2악장은 유사 소나타 형식으로, 바이올린이 랩소디 풍의 화려한 연주를 들려준다. 이 곡에서 길이가 가장 긴 3악장은 가곡 <당신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D.741>의 변주곡이며, 마지막 4악장도 3악장의 주제를 변형시켜 화려하게 전개한다.

아르페지오네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가단조
D.821

Sonata for arpeggione
and piano in a minor
D.821

악기 제작자인 요한 게오르크 슈타우퍼와 페터 토이펠스도르퍼는 1823년에 헝가리 페스트에서 특이한 하이브리드 악기를 만들었다. 현을 브릿지에 걸고, 몸통 양쪽에 c홀 혹은 f홀이 있으며, 다리 사이에 세우고 활로 연주한다는 점에서 첼로와 비슷했다. 하지만 기타에 가까운 외관에 여섯 줄을 가지고 있어서, ‘기타-첼로’, ‘기타 다모레’, ‘활로 연주하는 기타’, ‘감상적인 기타’ 등으로 불렸다.

슈베르트는 1824년 11월에 빈에서 이 악기를 위한 소나타를 작곡했다. 아마도 친구였던 빈센츠 슈슈터의 위촉이었을 것이다. 슈슈터는 1825년에 디아벨리의 출판사에서 교본을 출판하며 이 악기의 보급을 위해 힘썼던 연주자였다. 슈베르트는 이 작품을 완성하고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라는 이름을 붙였다. ‘아르페지오네’는 아르페지오(펼친 화음)를 연주하기 쉽다는 의미로 슈베르트가 직접 지은 것 같다. 그런데 슈베르트의 다른 작품보다도 애잔한 연민이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당시 매독

의 악화로 큰 고통을 받고 있던 슈베르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나의 작품은 음악에 대한 나의 이해와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슬픔으로 만들어진 작품만이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다. 슬픔은 정신을 건강하게 한다.”

1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피아노에 의해 주제가 제시된 후 곧이어 독주악기가 주제를 다시 연주하며 등장한다. 첫 주제가 확장된 후 자연스럽게 활동적인 두 번째 주제로 이어지고, 독주악기의 피치카토와 함께 마무리된다. 두 주제가 다시 등장하며 발전하다가 첫 주제를 반복하는 짧은 카덴차로 마친다. 느린 2악장은 짧은 피아노 서주 후 호흡이 긴 서정적인 멜로디가 등장한다. 쉽 없이 이어지는 3악장 론도는 헝가리 스타일의 춤곡 리듬을 바탕으로 장조와 단조가 급격히 번갈아 등장하고 여러 새로운 주제가 제시되는 등 여러 감정의 격변으로 요동한다. 그리고 첫 선율로 되돌아와 전곡을 마친다.

오늘날에는 첼리스트들에게 중요한 레퍼토리 중 하나지만, 음역이 넓고 음 간격이 좁은 여섯현의 악기를 위한 곡이기에, 음 간격이 넓은 네 줄을 가진 악기에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매우 드물게 아르페지오네를 복원하여 연주하기도 한다.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시든 꽃’ 주제에 의한 서주와 변주
Op.160 D.802

Introduction and Variations
on ‘Trockne Blumen’ for flute
and piano, Op.160 D.802

그녀가 내게 준 꽃들, 내 무덤에 함께 누워야 한다
너희 꽃들은 왜 그리 시들고 창백하느냐?
너희 꽃들은 왜 그리 눈물에 젖어 있느냐?
봄이 오고 겨울이 간다
그러면 꽃들은 들판에 자라겠지
그리고 나의 무덤을 덮으리라
그러면 그녀가 언덕을 헤매다가
마음속에서 생각하리라, 나의 마음이 진실했다는 것을!

- 연가곡집 <아름다운 물레방앗간의 아가씨> 중 ‘18번째 곡, 시든 꽃’

슈베르트의 음악적 영감의 원천은 가곡이었다. <송어> 오중주와 <죽음과 소녀> 사중주가 자신의 가곡으로부터 만들어진 대표작들인데,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시든 꽃(마른 꽃)’ 주제에 의한 서주와 변주>(1824) 또한 기억해야 할 숨은 명곡이다. 이 곡의 모티브가 된 가곡은 연가곡 <아름다운 물레방앗간의 아가씨>(1823) 중 18번째 곡 ‘시든 꽃(마른 꽃)’이다. 연인과 헤어진 남자는 그녀로부터 받은 꽃들이 자신의 무덤에 놓이기를 원한다. 그리고 5월에 그녀가 언덕을 지날 때 자신의 무덤에

놓인 꽃들을 보고 자신의 마음이 진신했음을 알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 가곡에 의한 변주곡은 이듬해 1월에 작곡되었다.

이 곡은 19세기에 유행했던 ‘서주와 변주’라는 구성으로, 슈베르트에게는 유일하다. 노래의 어두운 분위기를 반영하는 느린 서주로 시작하며, 이어서 주제와 일곱 개의 변주가 등장한다. 주제가 슬프고 어두운 내용인 탓에 전체적으로 진지하고 무겁다. 그런데 마지막 제7변주가 행진곡과 같이 씩씩해서 앞의 이미지를 깨고 화려한 쇼피스와 같은 인상으로 바꾼다. 그래서 알프레드 아인슈타인은 “독특한 친밀함과 절제를 가진 노래가 전적으로 기교적으로 처리되고 승리를 만끽하는 행진곡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은 슈베르트를 존경하는 사람들을 슬프게 한다. 신성모독이다.”라고 말했으며, 브리지트 마생도 “장난감 병정을 위한 행진곡”이라고 표현하며 마지막 변주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반면에 다닐로 프레푸모는 장송행진곡이라고 말하며 주제와의 연관을 시도하고, 바이올리니스트 T. A. 이른베르거는 꽃들의 춤을 행진곡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는 등 지지하는 의견도 있다. 어쨌든 슈베르트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죽음을 외면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하다.

글 | 송주호 (음악 칼럼니스트)

CREEDIA

첼리스트 피터 비스펠베이

Cellist Pieter Wispelwey

피터 비스펠베이는 고전과 현대 첼로를 둘 다 훌륭하게 다루는 몇 안되는 첼리스트 중 한 명이다. 비스펠베이는 독창적인 해석과 경이로운 테크닉은 물론이거니와 작품에 대한 예리한 분석으로 바흐부터 슈니트케, 엘리엇 카터 그리고 그에게 헌정된 작품들까지 광범위한 레퍼토리를 소화해내며 비평가들과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피터 비스펠베이는 실내악 연주를 즐겨 하는데, 피아니스트 세드릭 티베르기앵, 알라스테어 비트슨과의 정기적인 듀오 연주를 비롯해 오스트레일리안 스트링 콰르텟을 포함한 수많은 현악 사중주단에서 객원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하프시코드 연주자인 마한 에스파하니와 유럽을 무대로 새롭게 보여준 협업을 통하여 바흐의 감바 소나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비스펠베이는 파올로 자코메티와 함께 슈베르트와 브람스의 듀오 레퍼토리 작품 전곡을 녹음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으며, 마지막 5번째 앨범이 올해 봄에 발매되었다. 이 프로젝트로 올해 세계적인 권위의 브람스상을 수상하였다.

비스펠베이는 5개 대륙에 걸쳐 연주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보스턴 심포니, 달라스 심포니, 세인트 폴 체임버 오케스트라, NHK 심포니, 요미우리 일본, 도쿄 필하모닉, 삿포르 심포니, 시드니 심포니, 런던 필하모닉, 할레 오케스트라, BBC 심포니, BBC 스코틀랜드 심포니, 계몽주의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오브 에인선트 뮤직,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다니엘 국립 라디오 심포니,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카메라타 잘츠부르크 등 세계 일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이반 피셔, 예사-페카 살로넨,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야닉 네제-세갱, 제프리 테이트, 켄트 나가노, 네빌 마리너, 필립 헤레베헤, 바실리 시나이스키,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 파보 베르그룬드, 로저 노링턴 등의 지휘자들과 함께 작업하였다. 또한 런던 위그모어 홀, 파리의 샤틀레, 루브르, 암스테르담의 콘세르트허바우, 뮌헨의 바우 하우스, 브뤼셀의 보자르 아트센터, 베를린의 콘체르트하우스, 밀라노의 소체타 델 콰르테로,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테아트르 콜론, 시드니의 웃손 룸, 로스 앤젤레스의 월트 디즈니 홀, 뉴욕의 링컨센터 등 세계적인 공연장에서 정기적으로 리사이틀을 열며 비스펠베이는 가장 카리스마가 넘치는 연주가 중 한 명으로 명성을 쌓아왔다.

2012년, 비스펠베이는 50세 생일을 맞이하여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 녹음 프로젝트



를 EPR 클래식을 통해 발매하였으며, 이는 그의 세 번째 바흐 무반주 전곡 레코딩이었다. 이 음반에는 저명한 바흐 연구자인 로렌스 트레이퍼스, 존 버트와 바흐 조곡의 해석을 두고 토론하는 모습을 담은 DVD도 포함되어 있다. 그의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연주회는 유럽과 미국의 주요 비평가들로부터 찬사를 이끌어냈다. ‘이론적으로 이 곡은 탁월함, 정력, 심지어는 약간의 자만심까지도 필요로 한다. 현실에서, 비스펠베이는 도발적일 정도로 심금을 울리는 연주를 통해 인상적으로 자신을 증명해냈다.’(뉴욕 타임즈)

채널클래식, 오닉스레이블 그리고 EPR 레이블 등을 통해 발매된 비스펠베이의 50여장에 걸친 인상적인 음반들은 다수의 주요한 음반 상들을 받았다. 이 외에도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와 함께 한 C.P.E. 바흐의 첼로 협주곡 가장조와 지휘자 김성향과 플랑드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말로의 첼로 협주곡, 생상의 첼로 협주곡 2번, 브리튼의 첼로 심포니, 그리고 지휘자 바실리 시나이스키와 로테르담 필하모닉과 협연한 프로코피예프의 심포니 콘체르탄테 음반들이 있다.

근래의 주요 공연들로는 시드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연주하는 하이든 첼로 협주곡 2번, 제네바 카메라타와 연주하는 하이든 첼로 협주곡 1번, 플랑드르 심포니와 연주하는 엘가 첼로 협주곡, 도쿄 토탄 홀에서의 사오 폴로 주 교향악단과의 쇼스타코비치 첼로 협주곡 1번 협연과 런던 위그모어 홀과 킹스 플레이스, 암스테르담의 콘서트트허바우, 라이프치히 바흐페스트, 드레스덴의 음악제 그리고 몬트리올 폴락 홀에서의 리사이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비스펠베이는 멜버른 리사이틀 센터의 특집 시리즈의 하나인 그레이트 퍼포머(Great Performer) 시리즈에서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과 베토벤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 전곡, 그리고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 두 작품을 3일 연속으로 선보이기도 하였다.

네덜란드 하를렘에서 태어난 비스펠베이는 암스테르담에서 디키 부커와 안너 빌스마를, 미국에서는 폴 카츠를 사사하였으며, 영국에서는 윌리엄 플리드를 사사했다.

현재 비스펠베이는 뒤셀도르프 로베르트 슈만 음악대학과 암스테르담 콘서바토리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며, 1760년산 지오바니 과다니니 첼로와 1710년산 바락 노먼 바로크 첼로를 사용하고 있다.



© MARCO BONGERRE

CREDIA

피아노
파올로 자코메티

Piano
Paolo Giacometti

파올로 자코메티는 고전과 현대 악기에 모두 능한 독주자이자 실내악 연주자로서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네덜란드로 이주한 자코메티는 암스테르담 스베일링크 음악원에서 장 원을 사사하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자코메티의 영감의 중요한 원천인 피아니스트 지외르기 세빅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자코메티는 국내의 다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그는 프란스 브뤼헨, 케네스 몽고메리, 로랑 프티지라르, 마이클 킬킨, 그리고 얀 판 츠베덴과 같은 저명한 지휘자들과 함께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독주자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실내악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자코메티는 피터 비스펠베이, 고단 니콜리치, 재닌 안센, 바트 슈니만 그리고 빅토리아 물로바 등 최고의 연주자들과 협업해 오고 있다. 유럽, 캐나다, 미국에서 열리는 다수의 실내악 축제로부터 초청을 받고 있으며, 암스테르담의 콘서트트허바우,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테아트르 콜론, 런던의 위그모어 홀, 파리의 샤틀레극장, 서울의 예술의전당 등 전세계의 주요 공연장에서 공연했다.

채널 클래식스의 전속 아티스트로서 앨범을 발매해왔는데, 그의 음반은 국제 언론으로부터 널리 호평을 받았다. 1998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에 완성된 프로젝트인 로시니 피아노 작품 전곡 앨범은 로시니의 조국인 이탈리아의 비평가들로부터 ‘로시니가 드디어 그의 피아니스트를 찾았다’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자코메티는 이 시리즈의 세 번째 음반으로 에디슨 클래식 음악상(2001)을 수상하며 명성을 얻었다.

또한 슈만의 유모레스크, 환상소곡집, 그리고 토카타를 녹음한 음반은 BBC 뮤직 매거진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드보르작과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음반은 그라모폰으로부터 ‘최고의 협주곡 음반 중 하나’라는 평을 이끌어냈다.

자코메티가 첼리스트 피터 비스펠베이와 함께 한 레코딩은 네덜란드의 음악 매거진인 루이스 터지가 선정한 ‘최고의 음반 10’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 음반으로 쇼크상, 황금 디아파중상을 포함하여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또한 피터 비스펠베이와 작업한 ‘슈베르트 & 브람스: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 전집’으로 2019년 브람스 상을 수상했다.

파올로 자코메티는 현재 뒤셀도르프의 로베르트 슈만 음악대학에서 피아노 교수로 재직중이다.

카멜레온 첼리스트,
피터 비스펠베이



CREDIA

"음악가는 카멜레온 같아야 합니다.

어떤 작품을 시작할 때 그 작품의 느낌이나 분위기에 완전히 젖어들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작곡가의 비전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 첼로 연주계의 뚜렷한 경향 가운데 하나는 엔드핀과 강철 현 같은 현대적인 부속품으로 무장한 현대악기와 바로크·고전 첼로 같은 시대악기(Period Instrument)를 둘 다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첼리스트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진지한 첼리스트들 사이에서 작곡가의 의도와 표현을 진실되게 탐구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악기와 연주법을 적용해보는 것이 의미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주 자세며 방법, 사용하는 현과 활도 전혀 다른 두 가지 악기를 모두 잘 연주하는 것은 불가능한 도전으로 여겨졌다.

요요 마와 바로크 음악 전문가 톤 코프만이 함께 만든 <Simply Baroque>(Sony, 1999)가 음악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두면서 이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다. 그리고 장-기앙 케라스, 매트 하이모비츠, 솔 하베타, 이르지 바르타(Jiri Barta)가 여기에 뛰어들어 벌써 제법 자리를 잡았다.

피터 비스펠베이는 이 분야에서 단연 독보적이고 탁월한 인물이다. 피터 비스펠베이는 현대악기, 시대악기라는 이분법 자체를 거부한다. 그는 바로크 첼로와 바흐 무반주 모음곡 연주로 유명해졌지만 드보르자크, 엘가, 슈만 협주곡처럼 현대악기 첼리스트들의 표준 레퍼토리는 물론이고 힌데미트, 엘리엇 카터, 루트스와프스키, 뒤티외, 리게티 같은 아방가르드 음악에 이르기까지 정말 폭넓은

레퍼토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자기 말마따나 그야말로 음악적인 카멜레온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바흐든 베토벤이든 브람스든 슈베르트든 비스펠베이의 내한 연주를 들어 본 사람이라면 그의 놀라운 음악적인 설득력을 기억해낼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콩쿠르 출신도 아니고 유명한 음악원이나 첼로 학파와도 거리를 두고 있는, 사실상 독학자에 가까운 자유로운 영혼이 이 정도 음악적 성과를 거둔 것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 음악성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호기심 넘치는 전인적 음악가

비스펠베이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근교에 있는 소도시 하를렘(Haarlem) 출신이다. 하를렘은 인구 20만도 안 되는 작은 도시지만 성 바보(Sint Bavo) 대성당에 있는, 18세기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뮐러(Christian Mueller) 오르간으로 바로크 오르간 음악 팬들에게는 익숙한 지명이다.

아마추어 음악가 가정에서 자란 비스펠베이는 겨우 글자를 익힐 무렵부터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해 8세 무렵부터 10대 중반까지 디키 부커(Dicky Boeke)에게서 피아노와 첼로를 배웠다. 디키 부커는 네덜란드의 저명한 고음악 전문가인 케이스 부커(Kees Boeke)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비스펠베이의 바로크 첼로와 고음악 연주에 디키 부커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실한 증거는 없다. 하지만 다양한 예술에 관심이 있었던 디키 부커의 레슨은 비스펠베이가 단순한 첼리스트가 아닌 호기심 넘치는 전인적인 음악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양 창자를 꼬아 만든 거트현의 아름다움 역시 그녀를 통해 알게 되었다. “거트 현에 대한 저의 집착에 대해 그녀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디키 부커의 도움으로 그는 당시 네덜란드에서 가장 선도적인 첼리스트였던 안너 빌스마(Anner Bylsma) 앞에서 오디션을 보고 제자가 된다. 하지만 널리 알려진 것처럼 빌스마에게서 바로크 첼로 기술과 레퍼토리를 배운 것은 아니다. “내 목표는 바로크 첼리스트가 되는 것이 아니었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빌스마와 함께 평범한 첼로 레퍼토리를 공부했습니다.”

사람들은 빌스마가 1959년 파블로 카잘스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1962~68년 로열 콘서트트허 바우 오케스트라 수석 첼리스트로 있으면서 심지어 메시앙이나 힌데미트를 연주하는 현대음악 운동에도 참여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린다. 흥미로운 사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빌스마는 순수하게 바로크 첼로만 연주하게 된 반면, 비스펠베이는 현대 악기로 바로크 이외의 레퍼토리를 더 많이 연주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스스로 음악을 만들기 원했던 비스펠베이는 빌스마에게서 너무 많은 영향을 받게 될까 봐 바흐의 모음곡도 배우지 않았고, 바로크 첼로 연주법도 거의 독학하다시피 했다. 비스펠베이는 바로크 스타일로 연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엄격한 방법이 없으므로 실험하면서 스스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내 자신의 언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감각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슈베르트 작품에 천착하게 된 대가의 시선

비스펠베이는 빌스마 이상으로 윌리엄 플리드로부터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윌리엄 플리드는 자클린 뒤 프레의 스승이었으며 아들 앤서니 플리드를 세계적인 바로크 첼리스트로 키운 인물이다. 비스펠베이는 겨우 2주 동안 마스터클래스에 참여했을 뿐이었지만 ‘셰익스피어 배우처럼, 관능적이고 불타는 열정을 지니면서도 말하기에 능숙한’ 플리드의 연주를 평생의 모델로 삼았다.

2012년, 비스펠베이는 50세 생일을 맞이해 바로크 첼로로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세 번째로 녹음했는데, 매번 새로운 시도를 하는 만큼 이전 녹음과는 완전히 다른 해석으로 연주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바흐 녹음은 1710년산 영국제 바라크 노먼 악기로 연주했고 세 번째 녹음은 현재 쓰고 있는 18세기 네덜란드 제작자인 피터 롬바우츠의 바로크 첼로로 연주했다. 특히 현대 음높이보다 거의 한 음이나 낮은, 바흐 시대 코텐에서 사용하던 음높이로 연주해 바흐 모음곡에 새로운 색깔을 입혔다. 다음 전곡 녹음 프로젝트는 어쩌면 현대적으로 세팅되고 엔드핀을 갖춘 과다니니 첼로로 연주하게 될 것이다.

비스펠베이는 첼로 이외의 것은 물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 과다니니 악기를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 그는 아직도 크리스티 경매를 통해 1760년산 조반니 바티스타 과다니니를 구입했던 날을 잊지 못하고 있다. 비스펠베이의 과다니니는 표준 첼로보다 조금 작지만 풍부한 음색과 탁월한 선명도를 자랑하는 악기이다. 70년 가까이 잠들어 있었던 과다니니는 그날 오후 악기점에서 약간의 수리를 하고 바로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 이후의 역사는 우리가 수많은 연주회와 음반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다.

바흐 무반주 모음곡 전곡 연주,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처럼 평소 한 작곡가의 첼로 작품 사이클을 전부 연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비스펠베이는 최근 슈베르트에 폭 빠져 있다. 새로운 레이블 ‘Evil Penguin’에서 슈베르트의 듀오 작품 전부를 첼로로 편곡해 연주했는데, 그중에는 아르페지오네 소나타처럼 첼로 연주로 널리 알려진 곡도 있지만 대부분 첼로를 위해 새롭게 편곡한 작품이다.

슈베르트 연주에서 비스펠베이는 존경하는 스승들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 그는 안너 빌스마의 설득적인 수사법과 윌리엄 플리드의 감각적이고 열정적인 웅변 사이에서 균형을 탐구하고 있다. 그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명확하다. “첼로는 목소리의 표현력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글 | 최지영 (음악 칼럼니스트)

2019 스타즈 온 스테이지, 두번째 이야기



STARS ★ ON ★ STAGE



YOOJIN JANG JU HEE LIM

장유진 VIOLIN | 임주희 PIANO

스트라빈스키 불새

슈베르트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 C장조 D.934



IN MO YANG TAEGUK MUN BEN KIM

양인모 VIOLIN | 문태국 CELLO | 벤킴 PIANO

글리에르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8개의 소품 Op. 39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3중주 제 2번 e단조 Op. 67



ENSEMBLE DITTO

양상블 디토

리처드 용재 오닐 VIOLA | 다니엘 정 VIOLIN

자니 리 VIOLIN | 문태국 CELLO | 스티븐 린 PIANO

드보르작 피아노 5중주 A장조 Op. 81

2019.10.6 SUN 5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인터뷰 with 피터 비스펠베이

올해의 프로그램은 슈베르트로만 구성됩니다. 바흐, 베토벤, 브람스, 슈베르트 등 한 작곡가의 작품으로만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주로 소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 작곡가만의 곡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연주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같은 작곡가의 다른 여러 작품들을 통해 작곡가의 언어, 몸짓 그리고 그가 전하려고 하는 의미에 더욱 익숙해지고 이해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슈베르트의 작품만으로 연주를 하는 것은 꽤나 감정을 자극하는 경험이기도 한데요, 연주를 하다보면 슈베르트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의 이른 죽음에 대해 애통함을 가지게 됩니다.

전곡연주를 통해 작곡가의 세계에 더 잘 다가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곡연주로 만나고 있는 슈베르트의 내면은 어떤 것입니까? 우울하고, 우정과 사람의 온기를 갈구하고, 내성적이었다는 일반적인 인식은 옳은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그 인식이 일반적인 것이 맞나요? 저는 슈베르트가 우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그의 작품들이 이렇게 거대할 수 없었겠죠. 슈베르트는 조금 낮을 가렸으며 어쩌면 여자 앞에서 자신이 없는 정도였을지 모릅니다. 슈베르트 인생관에서 키워드는 독일어 단어인 “Sehnsucht” 였는데,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이죠. 그는 동년배들과 감정을 많이 공유했습니다. 물론 그의 지병은 비극적이었고 그로 인해 일찍 죽게 되었지만, 친구들과의 커뮤니티와 비엔나 그리고 아름다운 환경들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번 공연의 감상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어떤 악기로 연주하나요?

이번 예술의전당 공연에서는 물론 과다니니 악기로 연주할 것입니다. 소나타 두 곡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유명한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는 2부를 여는 곡이 되겠고요. 1부 첫 곡인 사랑스러운 (바이올린을 위한) 가장조 소나타는 첼로와 정말로 잘 어울리는 환상적인 도입부 선율로 공연의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1부 두 번째 곡인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은 화려함, 드라마, 깊이, 기교를 모두 갖춘 특별한 곡입니다. 마지막으로 엄청난 기교와 풍부한 감정, 그리고 아름다운 우아함을 지닌 (플루트를 위한) ‘시든 꽃’ 변주곡으로 공연이 마무리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슈베르트가 자신의 곡의 선율을 변주하여 작곡을 한 곡이 ‘시든 꽃’ 변주곡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슈베르트는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 C장조의 중간 악장도 본인이 작곡했던 곡의 선율을 변주하여 작곡했습니다.

슈베르트와 브람스의 이중주 곡들을 모두 녹음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슈베르트가 첼로를 위한 곡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데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매우 간단합니다. 모든 레퍼토리가 첼로로 연주했을 때 듣기에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워서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슈베르트가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해 작곡한 6개의 곡과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해 작곡한 곡을 단지 첼로 작품으로 대한 것 뿐입니다.

이번에 함께 내한하는 파올로 자코메티(피아노)는 당신과 많은 연주를 했습니다. 그는 어떤 연주자인가요?

파올로는 단연코 제가 가장 오랫동안 함께 해온 파트너입니다. 그는 무척이나 감성이 풍부하고 기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음악을 만드는 것이 즐겁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제 가장 절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에요.

첼로는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닮은 악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신에게 첼로는 어떤 의미인가요?

첼로는 제게 정말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첼로를 선택한 것은 2살때였습니다. 점차 저는 첼로를 악기로 보지 않게 되었어요. 첼로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8세에 첼로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나요? 당신의 음악적 멘토가 되어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빌스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첫 번째 선생님은 제가 2년을 기다린 후에야 첼로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8살때까지는 거의 4년간 스스로 피아노를 독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인내심이 결실을 보기 시작했죠.

제가 14살 때 만나 빌스마가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연주하는 것을 들었던 그 때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영감을 주는 분은 제가 16살 때부터 LP와 CD를 수집하기 시작한 성악가 피셔 디스카우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제게 가장 중요한 음악은 슈베르트, 슈만, 브람스, 볼프, 그리고 슈트라우스의 가곡이었습니다.

향후 레코딩 활동 계획이나 도전하고 싶은 새로운 일들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파올로와 저는 슈베르트와 브람스 연주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뿐만 아니라 새로운 레파토리를 꾸준히 추가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시즌에는 로슬라베츠, 카발레프스키, 바인베르크의 소나타와 같은 이국적인 후기 러시아 음악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젊은 연주자들을 위한 조언 한 마디로 부탁드립니다.

연습할 때 인내심과 재미, 그리고 지혜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이상과 귀가 길을 이끌게 하세요. 그리고 즐겁게 연주하세요.



THE XVI INTERNATIONAL
TCHAIKOVSKY COMPETITION



THE XVI INTERNATIONAL TCHAIKOVSKY COMPETITION

제16회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우승자 갈라 콘서트

CREEDIA

지휘 | 노리치카 이이모리 Norichika Iimori
디토 오케스트라 Ditto Orchestra



마오 후지타, 피아노



세르게이 도가엔, 바이올린



스티이고 카논 발렌시아, 첼로



민태국, 첼로

2019.10.15 TUE 8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CREEDIA MUSIC & ARTISTS 후원 KOREAN AIR 5.0 티켓 R석 12만원 | S석 9만원 | A석 6만원 | B석 4만원 예매 Club BALCONY 1577-5266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예술의전당 02-580-1300

프로그램 차이콥스키 | 페초 카프리치오스 B단조 Op. 62 / 피아노 협주곡 1번 B b 단조, Op. 23 /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A장조 Op. 33 /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Op. 35

미샤 마이스키 &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

지휘 토마스 체트마이어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와
390년 전통의 오케스트라와 만남

MISCHA MAISKY | MUSIKKOLLEGIUM WINTERTHUR | THOMAS ZEHETMAIR



베토벤 에그몬트 서곡 Op.84 | 슈만 첼로 협주곡 Op.129 | 브루흐 콜 니드라이 Op.47 | 베토벤 교향곡 5번 Op.67 '운명'

2019.10.25 FRI 8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0.24.THU 강릉아트센터 | 10.26.SAT 대구콘서트하우스

C U A R T E T O

현악4중주의 고전을 만나다

카잘스 콰르텟

C A S A L S

10.22



CoMPAS19

일시 | 2019. 10.22(화) 8pm | 주최/장소 | LG아트센터 | 티켓 | R 8만 / S 6만 / A 4만 원 * 청년할인 20-30% 할인 (1인 1매)

문의 및 예매 | LG아트센터 02-2005-0114 인터파크 1544-1555



2019 글로벌고객만족역량 조사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부문 1위 대한항공



DELHI

전설과 신비의 땅, 인도에 귀 기울이다

대한항공 델리 노선 매일 운항
델리에서 당신만의 인도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www.koreanair.com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타지마할
Taj Mahal

피터 비스펠베이 첼로 리사이틀

피아노: 파올로 자코메티

이 프로그램은 Club BALCONY 후원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www.clubbalcony.com 에서 공연을 예약한 후원회에 한함)

www.credia.co.kr

CRE DIA MUSIC & ARTISTS

CRE DIA
INTERNATIONAL

CRE DIA
ENTERTAINMENT



CREDIA



CREDIA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클럽balconi닷컴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lub BALCONY.

www.clubbalcony.com